언어습득의 몇 가지 문제*

조 명 한

0. 머 리 말

아동언어에 관한 연구는 역사가 매우 오래다. 기록으로는 에짚트 왕 Psammetichus 1세가 서력 기원전 610년 경에 수행한 연구를 Herodotus가 보고한 것이 전해지고 있다. 엉뚱하게도 이 연구는 어린이가 최초로 발설한 말을 관찰함으로써 어느 종족이 태초부터 가장 오래 그리고 먼저 이 지상에서 살기 시작했는가를 알아내고자 했다. 이러한 연구의 목적은 과학적인 타당성이 매우 의심스러운 것이지만, 실상 많은 연구가 이와 엇비슷한 편견을 앞세우고 있는 예가 흔하다. 인간의 신비 중의 신비는 인간만이 유독 말할 수 있는 것이라는 명제가 그 하나의 본보기이다. 게다가 어린이가 어떻게 그렇게 쉽게 그리고 빠르게 말을 익힐 수 있는가 하는 문제는 아동언어의 연구자에게나 어린이의 부모에게나 한결같이 관심의 촛점이 되어 왔다.

특히 근래에는 아동언어에 대한 막대한 양의 연구가 쏟아져 나왔다. 이것도 사실은 Chomsky (1965; 1968)가 제안한 선험성과 보편성의 개념에서 촉발된 연구들이다. 이른바 경험주의와 대립되는 이 이성주의의 입장은 소박하게는 앞에서 우리가 지적한 개념들을 전제하고 있는 것이다. 즉 오로지 사람만이 언어를 소유하고 있고 사람이라면 어떠한 종족이라도 언어를 갖고 있다는 종족에게 특수하고도(species specific) 모든 종족에게 균일하다는(species uniform) 것을 은연 중에 그 밑바탕의 논리로 삼고 있다. 선험성과 보편성의 가설은 이 소박한 견해를 학문적으로 牽强附會한 것이다.

이 논문의 목적은 우선 근래의 언어습득 연구들을 개괄함으로써 이들 개념의 타당성 여부를 살펴보자는 것이다. 실상 이들 개념을 과학적으로 검증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어찌 보면 아예 과학적인 탐구가 불가능한 사이비 문제(pseudo-problem)일른지도 모른다. 종족에 특수성, 언어능력의 보편성 및 선험성은 어떤 학파의 이념으로서만 값있는 용어들일른지 모른다. 실제로 몇몇 연구들은 이것들을 검증하여야 할 가설로서가 아니라 연구의 전제되는 가정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형편이다. 그럴수록, 이들 개념의 사실성의 여부를 캐는 것은 더욱 더 중요한 일일 것이다. 아동언어에 관한 엄청난 수효의 연구가 근래에 수행된 까닭으로, 이제는 이들 연구가 찾아 놓은 사실들에 견주어 위의 개념들의 타당성을 직접 간접으로 검토할 시기가 이른 것 같다. 이 논문의 또 다른 목적은 언어와 인지와의 관계라는 관점에서 최근의 연구들을 개관하자는 것이다. 언어가 인지와 사고를 결정한다는 언어 상대성 가설에서부터 단순한 수단일 따름이라는 도구설에 이르기까지, 이 문제는 닭과 달걀이 아옹대는 사변적인 논쟁이 고작이었다. 그러나 언어와 인지의 관계야말로 언어의 심리적 현실의 본질이다.

1. 아동언어의 문법

초기의 아동이 한정된 어휘를 가지고 어떻게 문장을 구성하는가 하는 문제야말로 아동

* 이 논문은 1977년 11월 서울대학교 어학연구소 주최 제11회 어학연구회에서 발표한 것을 다시 쓴 것이다.

언어 연구의 주된 관심사이다. 단어의 조합이 임의적이고 무작위한가, 아니면 체계적이고 규칙적인가, 그리고 규칙적이라 하더라도 성인 언어를 단순히 모방한 것인가, 아니면 어떤 창조적인 과정인가 하는 물음이다. 우선 아동언어의 관찰자들의 일치된 견해는 단어의 조합이 규칙적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어떤 규칙으로 문장을 구성하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일치된 견해가 없다.

우선 Brown & Bellugi(1964)의 전보식 문장의 구성규칙을 들 수 있다. 이것은 마치 우리 어른이 전보를 칠 때 완전한 문장을 어떤 방식으로 축소시키는 것과 마찬가지로 어린이들 역시 부모의 문장을 축소한다는 것이다. 이때 문장구성의 기제는 주로 축소하여 모방하는 (imitation with reduction) 것이다. 이를테면,

어린이 : 학교?
어머니 : 그래, 이게 엄마 학교야.
어린이 : 엄마 학교.

에서 처럼 한편으로 아이는 부모의 말을 축소하고 다른 한편으로 부모는 아이의 말을 확장을 통해 모방(imitaion with expansion)한다. 모방이라고 하지만 그 축소의 양식이 매우 체계적이어서 단순한 기계적인 모방이라기보다 창조적인 면이 있다. 즉 삭제되지 않고 그대로 보존되는 형태는 대체로 세 가지 개방 부문인 명사, 동사 및 형용사로 된 내용어들이다. 반면에, 기능어의 유목에 속하는 폐쇄 부문인 접미사, 조동사, 관사, 전치사, 그리고 접속사 따위는 쉽사리 생략된다. 따라서 Brown 자신도 아동이 실제로 언어표현된 것을 단순히 학습한 것이 아니라, 여러 잠재적인 표현도 생성할 수 있는 생산적인 공식이나 규칙체계를 아동이 습득한 것이라고 결론짓고 있다.

그러나 기능어가 그렇게 쉽사리 생략되지 않는다는 것이 독일 아동의 관찰에서 보고되었다(Park, 1970). Brown 역시도 자신의 재료를 다시 분석한 결과 기능어라고 보아야 할 대명사들이 그대로 보존되어 있음을 찾아냈다. 뿐더러,

어머니 : 아빠 방에 들어가지 말아라.
어린이 : 아빠 방 이놈.

이라는 대화에서, 비록 어린이의 말이 어머니의 말을 축소하여 반복한 것이라 하더라도 그것을 모방이라 보기에는 너무나 이질적이다. 따라서 전보식 문장이 어느 정도 아동언어의 특성을 잘 대표하고도 있으나, 그것만으로는 아동의 문장구성 규칙을 제대로 옳게 해명했다고 할 수 없다.

70년 대 초까지 상당한 설득력을 갖고 등장한 아동언어의 문법이 주축어(pivot word; P)와 개방어(open word; O)의 분류이다. McNeill(1966)은 분포상의 접근 방법을 통해 비교적 적은 수의 유목의 단어로서 사용 빈도는 높고 문장에서의 위치가 상당히 한정되어 있는 주축어의 유목과 반면에 수는 많되 사용 빈도는 낮은 개방어의 유목으로 분류하였다. 그리하여 어린이가 내면화하고 있는 문장구성의 규칙을 S→(P)+O로 공식화하였다. 예컨대,

바까 쪼쪼. (밖에서 쉬했다.)
바까 따. (밖에 달이 있다.)

라든가,

또 아야. (또 애기가 기어 나온다.)
또 아탕. (사탕을 또 줘.)
또 빠바방. (또 자동차가 있다.)

의 보기에서, 위의 정의에 따라, '바까'나 '또'를 주축어라 규정할 수 있으며 기타의 단어들을 개방어의 유목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것이 엄격한 구성규칙이 되려면, (1) 앞뒤에 나오는 단어 위치가 고정되어야 하고, (2) 주축어 유목에 속하는 단어는 단독으로 사용되지 말아야 하며, (3) 주축어는 다른 주축어와 더불어 사용되지 말아야 하며, (4) 주축어는 모든 개방어와 함께 사용될 수 있어야 한다.

불행히도 이들 네 가지 제약을 모두 지키는 아동언어는 관찰된 것이 없다. 구성형식에서도 그렇거니와 심층적인 의미의 면에서도 심각한 비판이 제기되었다. 거듭 거듭 인용되는 예로서, Bloom(1970)은 그가 관찰한 Kathryn이란 어린이가 'mommy sock'라는 언어표현을 엄마의 양말을 집으면서, 그리고 엄마가 Kathryn에게 양말을 신켜줄 때 각각 동일하게 사용하였다고 한다. 겉보기에는 mommy가 주축어로 그리고 sock은 개방어로 이해될 수 있다. 그러나 이 두 언어표현에서 동일한 mommy가 전자의 경우에는 소유자로, 후자의 경우에는 행위자로 쓰여지고 있다. 말하자면 P-O 문법은 구성규칙으로서도 부적절하지만 의사소통의 기능과 의미를 파악하는 데에도 그 설명력을 잃고 있다.

이 이외에도 물론 Chomsky의 변형문법이 Bloom(1970)에 의해서, 그리고 심지어 Fillmore의 격문법이 Bowerman(1973)과 Brown(1973)에 의해서 시도되었다. 변형문법에선 문장의 기본 도식이 NP+VP라는 입장을 취한다. 아동언어의 구절구조는 NP 없는 VP, 예컨대, '과자 줘'이거나 VP 없는 NP, 예컨대, '아빠 책'이 대부분이다. 그러므로 아무리 삭제 규칙을 적용한다 하더라도 변형문법으로 아동언어를 설명하는 것은 무리라고 볼 수 밖에 없다. 어린이의 말에서 동사가 빈번히 생략된다는 사실은 또 역시 격문법의 적용 한계를 들어 내는 것이다. 격의 분류 역시 논란의 여지가 많다. 이렇게 보면 아동언어를 완전히 포괄하여 기술할 수 있는 문법은 아직 없다고 하겠다.

성인언어에 비해 아동언어는 매우 단순하다. 어휘수도 그러려니와 무엇보다 문장 길이가 짧다. 이를 완전히 포괄할 수 있는 문법이 없다는 것은 우리를 당혹시키고도 남는다. 아마도 그 잘못은 성인언어를 기술하는 기존의 문법에 있는 지도 모르겠다. 물론 아동언어는 성인어의 전보식 축소판만은 아니다. 어휘와 문장 길이만을 줄여 놓은 것이 아동언어가 아니다. 그러면 성인언어의 문법과 질적으로 다른 어떤 새로운 문법이 필요한 것인가? 필경 그렇지는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아래 부문에서 논의될 터이지만, 아동언어는 점차로 성인언어에 가까워지기 때문이다. 오히려 우리의 이상은 아동언어까지 포괄하는 문법을 정립하는 일이다. 어린이 말이 기본구조에 가깝거나 동일하다고 가정하는 것은 매우 그럼직한 일이다. 그러므로 아동의 초기 언어표현에서 부터 출발하여 그 통사발달 과정을 추적하면서 성인 언어를 기술 내지 설명할 수 있는 문법을 연구 접근하는 일이 필요할 것 같다.

2. 선험성의 문제

어린이의 언어습득이 매우 짧은 기간내에 이루어지는 것은 사실이다. 모국어든 외국어든 그것을 배우는 데 결정적인 시기가 있는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어린이의 언어습득이 단번에 이루어지거나 all-or-none의 양식으로 습득되는 것은 아니다. 그것은 점

진적인 발달단계를 거친다. 대체로 연령 조차도 발달 단계의 좋은 지표가 된다. 연령보다 더욱 좋은 지표는 언어표현의 평균 길이(mean length of utterance; MLU)다. Brown이 제안한 이 지표는 형태소의 수로 계산된다. 그는 MLU가 2.0에 이르기까지를 단계 I로 잡고, 그 후 5씩 증가함에 따라 단계 II, III, IV 및 V로 분류하는 데 그때마다의 언어발달의 특징을 잘 분류해 주고 있다. 이 지표는 여러 경험적인 재료에서 영어 사용 아동에게서 뿐만 아니라 다른 언어를 사용하는 어린이에게서도 언어발달 특징을 잘 가름하여주는 지표로 널리 인정받고 있다.

한 단어에서 두 단어로, 그리고 두 단어에서 세 단어로 언어표현되는 어간에도 그 사이에 재미있는 중간 단계가 관찰되었다(조명한·정복선, 1975). 두 단어 그리고 세 단어 문장을 말하기 시작하는 초기에는 '엄마' '아빠' 따위의 호칭어라든지, '아' 따위의 감탄어가 문장 초두에 나타난다. 말하자면 제일 처음 관찰되는 '엄마 아탕'이란 언어표현에선 '엄마'와 '아탕'이 상호 의미상의 연관을 맺고 있지 않다. 따라서 이들 두 단어는 기본적인 문장관계를 이루고 있지 않다. 처음 언어표현되는 세 단어 문장도 이와 같다. 그 후 어느 시기가 지나야 비로소 '엄마 아탕'이란 표현이 '엄마가 아탕을 주시다' 라든가 '엄마에게 아탕을 드리다' 혹은 '엄마의 아탕'이란 기능으로 사용된다. 따라서 한 단어에서 두 단어 문장으로, 그리고 두 단어에서 세 단어 문장으로 옮기는 데에도 중간 단계가 있다는 사실은, 언어발달이 얼마나 점진적인가를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밖에 없다. Bloom(1973)의 관찰에 따르면 진정한 두 단어가 출현되기 이전에 과도적인 단계가 있는데, 예컨대, 열려 있는 문을 넘어 가면서 'door...open'이라고 말한 것을 보고하고 있다. 여태껏 'door'와 'open'으로 각각 표현하던 것을 띄엄띄엄 함께 잇대어 표현한 것이다.

분명히 언어발달이 점진적이라는 사실은 언어능력을 타고난다는 선험성의 가설에 하나의 반증이 될 수 있다. 엄격히 보아, 이때까지의 언어획득 연구에서 선험성의 가설을 지지할 만한 사실이 찾아진 것은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최근에 발표된 부모와 어린이 말 사이의 상관관계 matrix를 보면 한결같이 그 계수가 높다(Snow & Ferguson, in press). Nelson (1977)은 출생후 30개월 된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복합 의문문과 복합동사를 훈련시킨 결과, 이 어린이들이 다른 어린이들보다 이들 문장을 훨씬 더 빨리 말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을 보고하고 있다.

선험성을 주장하는 이들 역시 아이들이 수용하는 일차적인 언어재료의 중요성을 무시하는 사람은 없다. 그러나 어른들이 말하는 언어재료에 아이들이 단순히 노출되기만 하면, 그것이 언어 이해와 언어 산출의 필요충분한 조건이라고 주장한다. 단순한 노출 이외의 다른 어떤 보강(reinforcement)이 필요 없다는 것이다. Chomsky(1965: 200-201)는 '어린이들은, 그들을 가르치는데 특별한 신중을 기하거나 그들의 발전에 특별한 주의를 기울이지 않더라도, 상당수가 제1 또는 제2의 言語들을 아주 성공적으로 습득하는 것이 분명한 것 같다. 또한 관찰된 실제의 언어표현은 대부분이 단편적이고 갖가지 종류의 逸脫된 표현들로 구성되어 있음이 명백히 보인다. 어린이는 잘 형성됨의 정의와 문장에 해석을 부여해 주는 生成文法을 발명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음이 분명한 것 같이 보인다. 물론 그 어린이가 이같은 理論構成의 행위의 기초로 사용하는 第一次 言語資料는, 그가 구성하는 이론의 관점에서 본다면, 여러가지 면에서 결함이 있을 수도 있다'(李承煥·任永宰 譯)고 진술한 바 있다.

그러나 사실은 어린이가 수용하는 일차적인 재료는 단편적이고 일탈된 언어표현들이 아니다. 관찰에 의하면 부모는 어린이들과 매우 정성들여 의사소통하고 아이들의 말을 문법에 맞게, 그리하여 Nelson(1977)의 용어에 따르면 'sentence recasting' 하여준다. 뿐더러, 상과 벌만이 보강의 구실을 하는 것은 아니다. 여하하게 표현되는 모든 종류의 시인과 부인(approval and disapproval)도 보강의 역할을 한다. 어머니는 끊임없이 아이와 접촉하여 웃고 달래며 자기 아이가 하루 속히 입이 트이기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다. 아직까지는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이 어린이의 언어획득에 더욱 효과적인가를 가름할 수는 없다. 그러나 틀림 없는 사실은 어린이들이 언어환경에 단순히 노출되는 것이 아니라 부모의 부단한 노력이 뒤따르며, 그리고 그것이 아동의 언어습득에 매우 큰 영향을 끼친다는 것이다. 우리는 이 논의에서 언어능력의 선험성에 대해 어떤 결론적인 단정을 내리려 하지 않는다. 그 문제 자체는 사이비 문제이기 십상이며 그것을 근거로 어떤 현상도 귀결이 코걸이로 마구 해석해 댈 수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보아온 사실들——아이들과 의사소통하려는 부모의 의도, 확장을 통한 모방이나 sentence recasting, 훈련의 효과, 그리고 언어발달의 점진성——은 아무래도 선험성의 가설에 걸맞지 않는 사실들이다. 이러한 사실들을 제쳐놓고 구태어 Descartes, Leibnitz, Kant를 원용함은 합리적이 아닌 이성주의의 논리라는 것을 지적하려는 것 뿐이다.

3. 보편성의 문제

분포적인 분석이 그 실효를 옳게 거두지 못하자 자연히 아동언어에 대한 의미상의 관계를 분석하기 시작하였다. 결론부터 진술하면, 그리하여 아동언어들 간의 진정한 보편소는 그 표면 형식이 아니라 기능적인 의미상의 관계라는 것이 찾아 졌다. 처음으로 두 단어를 조합할 때 보이는 참조작용의 기본 조작은

(1) 지시하고 이름 붙이기
(2) 참조물이 반복, 재발하는 것을 평하거나 요구하기
(3) 참조물이 사라지는 것을 평하거나 요구하기
(4) 이미 나타나 있는 참조물에 대해 인사하거나 주목하기

가 그것이다(Brown, 1973). 이것이 분포적인 연구접근에서 주축적이라고 이름하였던 것의 기능들이다. 이와 때를 같이하여 형용, 소유, 처소, 행위자-행위, 행위자-목적, 목적-행위의 관계를 표현하는 단어조합들이 생긴다. Slobin(1970; 1973)은 누구보다도 보편성의 문제를 집중적으로 검토하였다. 그는 여러 나라 어린이들의 두 단어 문장을 비교하여, 위치나 이름대기, 요구나 욕망의 표현, 부정하기, 사건이나 상황을 진술하기, 소유를 지적하기, 형용하기, 그리고 질문하기의 6가지 기능에 있어서는 모든 나라 아동언어가 공통적이라는 것을 밝혔다. 그리고 이 시기의 언어가 Brown이 분류한 단계 I에 해당한다.

그러면 어떻게 각 나라의 아동언어가 보편적일 수 있는가 하는 문제가 남는다. 이른바 이성주의적 입장은 언어 보편소에 대한 선험적인 지식을 가정한다. 그러나 우리는 앞에서 이미 선험성의 개념이 얼마나 불확실한가를 검토하였었다. 보편성이 곧 다름 아닌 선험성이란 주장은 매우 그럴 듯한 억지이다. 보편성과 선험성의 등식을 결론 짓기 전에 우리는 있을 수 있는 모든 다른 가능성을 검토해야 한다. 그 첫째가, 아동언어의 보편성은 아동이

언어를 습득하는 책략(strategy)이 보편적이기 때문이라는 점이다. 이 점에 대한 Slobin (1973)의 검토는 매우 설득력 있다. 예컨대, 그가 들추고 있는 보편적 언어습득 책략의 조작 원리 A가 '단어의 말미에 주목한다'는 것이다. 모든 아동언어에서 접두사보다 접미사가 먼저 획득되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가령 우리 어린이들의 관찰에서도 두 단어를 조합하기 시작하는 것과 거의 때를 같이 하여 벌써 '이리 와' '이리 와라' '이리 와요' 등의 활용은 자유롭게 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둘째로 아동언어의 보편성은 아동의 인지가 보편적이기 때문일 것이라는 점이다. Schlesinger(1971)와 Brown(1973)은 특히 단계 I 에서 표현되는 어린이 말은 Piaget의 인지발달 단계 중 첫번째인 감각 운동 단계에서 보이는 개념들이라는 것을 지적하고 있다. Sinclair-de-Zwart(1973)는 어린이가 문장을 해석하는 방식이 비언어적인 인지발달과 비교하여야 잘 설명되어 질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Slobin (1973)은 언어형식의 발달과 그것이 의미하는 기능의 발달을 함께 고찰하면서, '새로운 형식은 우선 기존의 기능들을 표현하고, 새로운 기능들은 우선 기존의 형식으로 표현된다' (p. 184)라는 원리를 제안하고 있다. 이 원리는 가공적인 가정이 아니라 여러 관찰이 뒷받침하는 사실적인 진술이다. 이를테면 '엄마 밥 줘'라는 새로운 세 단어 문장의 형식은 기존의 의미, 즉 '엄마 밥' 혹은 '밥 줘'로 표현되던 기능을 그대로 뜻한다. 나아가서, '엄마가 학교에 가셨다'라는 행위자-행위의 새로운 기능을 기왕에 이미 '엄마의 학교'라는 뜻으로 사용하고 있던 '엄마 학교'라는 언어표현의 형식을 빌어 표현한다. 이 언어발달의 원리는 어린이들이 이미 기왕에 자기가 알고 있는 것만을 언어표현한다는 것을 가르쳐 준다. 말하자면, 인지발달이 언어발달에 선행한다는 것을 보여 준다.

사람의 인지의 특성이 보편적이라는 것은 잘 알려진 심리학적 사실이다. Lenneberg (1967)는 사람의 인지는 인간 종족만에 특수한 특성이라고 하였다. 온갖 종류의 나무들을 '나무'라는 개념으로 분류하고 범주화하는 인지작용은 생물학적으로 부여받은 인간만의 고유한 특성이다. 언어 역시 대상을 분류하고 범주화하는 성질을 갖고 있다. 이 개념화 작업에서 언어와 인지의 작용은 일치한다. 이때 인지가 언어에 선행한다는 것이 사실이라면, 필경 언어의 보편성은 인지의 보편성에 기인할 것이다. 따라서 언어 보편성이 언어능력의 선험성에 기인한다고 보기는 매우 어렵다. 단계 I 의 아동언어는 인지발달에서 감각 운동 단계의 지적 활동의 소산이라고 보아지기 때문이다. 게다가 아동 언어의 보편소들은 어린이들의 언어습득 책략이 공통적이라는 데서 그 원인을 찾아 볼 수도 있다. 구태여 보편성과 관련하여 언어능력의 선험성을 주장하려면, McNeill(1970)처럼 약한 언어보편성과 강한 언어보편성을 나누어 보는 것이 더욱 합리적이다. 그는 인지의 보편성에 따르는 언어 보편성을 약한 것이라고 규정하였다. 이에 반해, 보편적인 인지능력이 아닌 언어에만 특수한 능력이 있다고 가정하였다. 이것에 따르는 언어 보편성이 곧 강한 보편성이라고 한다. 하지만, 약한 것이 아닌 강한 보편소들이 도대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는 McNeill 자신도 확실하게 열거 못하고 있는 형편이다.

4. 참조작용의 심리적 현실

아동언어에 대한 최근 연구동향은 방법에 있어서나 주제에 있어서나 두드러지게 심층화하고 있다. 시간을 정해 정기적으로 어린이 말을 녹음기나 videotape로 관찰하는 방식을 탈피하고, 매일 매일의 일기를 소상하게 적는 방법을 채택하고 있다. 따라서 같은 말이라도

어떻게 제각기 다른 비언어적 문맥에서 사용되는가를 기록할 수 있게 되었다. 관심의 표적 역시도 통사발달에서 의미의 발달에 더욱 쏠리고 있다. 단어 조합이 아니라 단일 단어 언어표현을 탐구한 연구들이 부쩍 늘었다. 단어와 대상사이의 참조작용의 관계 내지 인지적인 개념형성의 문제가 연구 주제로 부각된 것이다. 이에 따라 언어심리학은 인식론 분야에 새로운 개념들을 제공할 수 있게 되었다.

Bowerman(1977)은 그의 딸 Eva가 'giddiup'이란 단어를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가를 보고하고 있다. Eva는 이 단어를 용수철 달린 말을 튀기면서 처음으로 사용하였다. 그 후 조그만 플라스틱 말을 집으면서 그리고 거기에 걸터 앉는 시늉을 하면서 표현하였다. 그 다음엔, 장난감 트랙터에 올라 앉으며, 텔레비젼에서 말을 보며, 세발 자전거를 타며, 목간통을 발굽으로 치며, 등등으로 사용하였다. Bowerman은 이 모든 장면이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속성을, (1) 사람이 걸터 앉을 수 있는 말이나 기타 장난감 동물, (2) 튀기는 동작, (3) 올라 앉거나 걸터 앉는 행위로 분석하였다. 'Giddiup'이 사용되는 모든 장면이 이들 3 속성을 함유하고 있으나 가장 이들 3 속성을 잘 대변하고 있는 것은 맨처음의 상황이라는 것이다. 달리 말하면, 'giddiup'이 여러가지 상황에 일반화하여 사용되지만 그 중 전형적인 것은 용수철 달린 말을 튀기는 장면이다. 하나의 단어가 여러 상황에 적용되지만 그 모든 것들이 어떤 특정한 전형적인 범례가 있어서, 그것을 중심으로 묶인다는 것이다.

개념이란 대상을 어떤 범주로 묶는 일이요 또 나누는 일이다. 상위개념으로 묶이며 하위개념으로 세분화된다. 이때까지의 모든 개념형성의 연구들은 한 대상이 한 범주에 예속되거나 예속되지 못하는(all-or-none) 양분적인 집합으로 보아 왔다. 그런데 Rosch(1973)에 의하면, 한 범주의 개념에는 그것을 가장 잘 대표하는 전형성(prototypicality)이 있다. 가령 과일의 가장 전형적인 것, 즉 가장 좋은 본보기는 사과이다. 복숭아는 아무래도 덜 전형적이며, 토마토는 아마 가장 나쁜 본보기다. 토마토는 과일 속에 집어 넣을 수도 있지만, 채소라는 범주에 묶을 수도 있다. 이렇게 한 개념의 테두리는 이거나 아니거나 한 것이 아니라 몽롱(fuzzy)한 것이다. 앞에 인용한 Bowerman의 관찰은 어린이가 사용하고 있는 개념에서 전형성이 무엇이며 또 그것이 어떻게 몽롱한 집합인가를 보여준다. Brown(1977)은 찾아 진 사실들을 여러 면에서 개관하면서, '부모들이 아동이 사용하는 첫번째 단어의 사례를 매우 전형적인 것에 부과하는 것 같다. 아마도 바로 첫번째 핵심의 대표가 곧 단일 전형일 것이다. 그러나 범주가 확장됨에 따라 아동은 그 전형이 변형 가능한 집합을 배운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차후에야 그는 어떠한 사례에 대해서도 상징을 사용할 수 있게 되고 범주 전체에 대해 상징을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라고 하였다.

아울러, Brown(in press)은 전형성과 관련하여 기본 대상의 수준이라는 Rosch의 개념을 검토하고 있다. 기본대상의 수준은 개념의 진정한 구조로서 상위 범주와 하위 범주의 가운데 있는 가장 포괄적인 수준이다. 하나의 대상은 실제로 여러 가지 이름을 가질 수 있다. 어떤 특정한 사과는 '홍옥' 혹은 더욱 잘게는 '77년도 대구산 홍옥'이라고 부를 수 있으며, 큰 테두리에서는 '과일' 혹은 '식물'이라 이름할 수도 있다. 그러나 아마도 그 특정한 사과의 가장 적절한 이름은 그냥 '사과'일 것이다. 하위 범주와 상위 범주 사이에 있는 이 '사과'라는 이름이야말로 모든 종류의 사과의 가장 포괄적인 명칭이다. 진정한 구조라함은 지각 특성과 운동 반응 및 심상이나 상상력에서 가장 두드러지고 풍부하다는 뜻이다. Anglin(in press)의 실험적 연구는 이 점에서 많은 것을 시사하여 준다. 일련의 그림을 하나씩 어머

니들에게 보여 주고 그 그림의 이름을 말하게 하고, 또 동일한 그림의 이름을 어머니가 직접 아이에게 말해 주도록 했다. 어머니가 어른에게 일러준 말과 아이에게 일러준 말은 많은 부문에 걸쳐 일치하기도 하였지만 아래와 같은 예에서는 각기 다르다는 것을 알아냈다.

성인에게 'sandal'; 아이에게 'shoe'
성인에게 'pigeon'; 아이에게 'bird'
성인에게 'collie'; 아이에게 'dog'
성인에게 'carnation'; 아이에게 'flower'
성인에게 'dime'; 아이에게 'money'

이 예들을 곰곰이 들어다 보면 아동언어에 대한 어떤 깊은 통찰을 얻게 된다. 어린이 말은 '띠띠'니 '까까' 따위라는 우리의 통념을 수정하여준다. 그것은 참으로 진정한 구조로서의 기본대상 수준의 말이다. 아동언어에 대한 이러한 깨우침은 아동의 참조작용에 대한 통찰이다. 우리는 여기서 역시 Piaget의 용어들을 빌지 않을 수 없다. 대상을 범주로 묶고 분류하는 일이 다름 아닌 인지작용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인지가 언어발달에 선행하기 때문이다. 말이 생기기 훨씬 전에 대상의 윤곽을 파악하고 모양을 지각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은 더 말할 나위가 없다. 그리고서도 대상의 항등성과, 나아가서 영속성의 개념이 발달하기를 기다려야 한다. 대상은 어디에서 보나 그 모양과 색깔이 같다는 것, 그리고 지금 현재 눈에 보이지 않는다 하더라도 어디에건 그것이 존재하고 있을 것이라는 앎을 우선 터득하여야 한다. 이것이 말이 생길 수 있는 최소한도의 전제조건이다. 이때 비로소 대상의 움직임과 지각적인 특성에서 어떤 전형성을 추출하여 단어와 결합시킨다. 이 첫 단어는 상위 범주도 하위 범주의 개념도 아닌 기본대상의 수준의 단어들이다. 차츰 어린이는 이 기본대상의 수준에서 전형성을 변형하며 확장한다. 이 개념의 확장은 몽롱한 테두리를 가지고 있을 따름이다. 말은 이 변형 과정에 참여하는 심리적인 현실이다. 대상을 상위와 하위의 범주로 분류하는 논리적인 작업은 아마도 초기 아동기에선 생기지 않는다. All-or-none으로의 분류는 형식논리의 작업이지 살아 있는 심리적 현실이 아니다.

5. Washoe와 Sarah의 언어습득

동물에게 인간언어를 가르친다는 것은 그것 자체가 매우 흥미로운 일이다. 우리에게는 인간언어가 인간에게만 특수한 것인가 하는 관심 때문에 더욱 흥미롭다. 역사적으로 이러한 시도가 만족할 만하게 성공한 예가 없었고, 게다가 늑대소년 Itard에게 조차 그것은 거의 불가능하였다. 30년 대 초에 Gua라는 침판지에게 약 100단어 가량 학습시킬 수 있었으나 듣고 이해할 수 있었을 뿐, 결코 말하지는 못하였다. 40년대에 Vicki라는 침판지는 노력 끝에 'mama' 'papa'와 'cup'을 말할 수 있었을 따름이다. 그러나 근래에 이 분야에서 획기적인 연구가 두 편 발표되었다.

Gardner & Gardner(1969)는 침판지 Washoe에게 벙어리들이 쓰는 손짓 언어를 가르친 결과를 발표했다. 발성기관이 미숙한 침판지에게 소리 언어를 가르친다는 한계를 감지하였기 때문이다. 미국식 손짓 언어는 많은 부분이 손짓 기호 자체가 뜻을 암시케 하는 영상적인 특성이 있다. Gardner 부부는 Washoe를 약 한살 때부터 키우기 시작하여 36개월 되는 때에는 아래와 같은 손짓 기호의 조합을 가르칠 수 있었다. 그리고 이 중 어떤 것은 Washoe

자신이 자발적으로 조합한 것이다.

두 기호 조합

Hurry open.
More sweet.
Listen eat. (저녁식사 종을 들으며)
Listen dog. (개짖는 소릴 들으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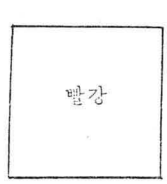
세 기호 및 그 이상의 조합

Gimme please food.
Please tickle more.
Key open food.
Open key clean.
Key open please blanke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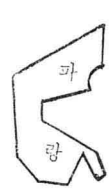
물론 이 예들은 기호의 조합을 영어로 옮겨 적은 것이다. 이 재료를 분석한 McNeill(1971)은 Washoe가 기호를 사용하는 능력은 가지고 있지만, 아동언어와 비교컨대, 기호들을 문법적인 관계로 조합하는 능력은 갖고 있지 않다고 논의하고 있다. 가령 'listen eat'라는 조합은 어린이의 언어표현에선 나타나질 않는다. 그러나 'eat'를 식사라는 명사적인 기호로 해석한다면 충분히 아동언어에서도 가능한 표현일 것이다. 문제는 세 기호 혹은 그 이상에서 보이는 기호 조합의 순서이다. 아마도 'key'는 도구격으로 사용한 듯 싶은데, Washoe는 'key open'이라고도 쓰고 있고 'open key'라고도 쓰고 있다. 어린이에게선 이런 마구잡이 순서가 보이질 않는다. 하지만 'key open food'이나 'key open please blanket' 따위는 아동언어에서 '엄마 아파 약'에서 처럼 '엄마 아파'와 '약'을 나란히 놓는 표현과 별 다를 것이 없다. 요컨대 엄격한 어순의 규칙을 지키지 않는다고 해서 Washoe의 말이 어린이의 말과 질적으로 다르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중요한 것은 Washoe가 자발적으로 기호들을 조합했다는 사실과 그것을 의미상의 관계를 표현하는 데 사용했다는 사실이기 때문이다. Brown(1973a)은 이점에서 Washoe가 소위 단계 I의 언어를 습득했다고 논의하고 있다.

Premack & Premack(1972)는 그들의 Sarah라는 침판지에게 또 다른 훈련을 수행하였다. 엄밀한 뜻에서 언어학습을 시켰다기보다 개념학습을 통한 의사소통의 정확성을 관찰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방식 역시 소리 언어도 몸짓 언어도 아닌 토막 맞추기였다. 아래가 그 플라스틱 토막의 보기다. Sarah는 이들 토막이 각각 무슨 기호인가를 학습하고 그리고 '무엇이 무엇과 같다' 혹은 '다르다' 하는 개념을 학습하고, 심지어 이들 플라스틱 토막 언어를 가지고 다른 토막 기호가 무슨 뜻인지를 학습할 수 있었다. 즉 언어를 가지고 언어를 학습하는 능력도 보여 주었다. Sarah가 이해한 가장 복잡한 토막 맞추기로는 'Sarah take

APPLE



BANANA



NAME OF

apple if-then Mary give chocholate Sarah'라는 것도 있다.

물론 Sarah 자신이 어떤 토막을 어떤 토막에 잇대어 놓는 솜씨를 보이기도 했지만 이 연구는 개념 이해를 중점적으로 다룬 것이다. 따라서 언어 산출 능력을 직접적으로 유출할 수는 없다. 그러나 분명하게 결론지을 수 있는 사실은 적어도 Sarah가 감각·운동 단계 이상의 인지능력을 소유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아마도 Washoe가 보인 기호조합의 능력은 이러한 인지능력의 덕분이리라.

6. 요 약

이 논문의 전반은, '성인언어와 아동언어 모두에 적합한 하나의 문법유형을 창안하는 목표가 남아 있다. 이 양자는 각기 동떨어진 것일 수 없다. 왜냐하면 결국 아동언어는 점차로 성인언어에 근접하기 때문이다'라는 Dale(1976: 94)의 진술을 검토한 것이다. 후반은, 아동언어의 보편성이 언어의 선험성에 기인한다기보다 인지능력에 그 원인이 있을 것이라는 점을 검토하였다. 이러한 논의 때문에 인지가 언어를 결정한다는 획일적인 결론을 유도하였다고 필자의 속셈이 잘못 오해되지 않길 바란다. 필자의 참 속셈은 말의 참조작용에 관한 앞으로의 연구에서 언어와 인지의 상호작용이 밝혀지길 바라는 것이다.

참 고 문 헌

Anglin, J. In press. Word, Object, and Conceptual Development. New York : Norton.

Bloom, L. 1970. Language Development: Form and Function in Emerging Grammars. Cambridge, Mass.: MIT Press.

_____. 1973. One Word at a Time. The Hague : Mouton.

Bowerman, M. 1973. Early Syntactic Development : A Cross-Linguistic Study with Special Reference to Finnish. Cambridge, England : Cambridge University Press.

_____. 1977. The acquisition of word meaning : An investigation of some current conflicts. Proceedings of The Third International Child Language Symposium, ed. by N. Waterson & Catherine Snow. New York: Wiley.

Brown, R. 1973a. Psycholinguistics. New York : Free Press.

_____. 1973b. A First Language : The Early Stages. Cambridge, Mass.: Harvard University Press.

_____. 1977. Word from the language acquisition front. Invited Address for the E.P.A. Meetings.

_____. In press. The New Paradigm of Reference.

_____. & U. Bellugi. 1974. Three processes in the child's acquisition of syntax. Harvard Educational Review 34, 133-151.

Chomsky, N. 1965. Aspects of the Theory of Syntax. Cambridge, Mass: MIT Press.

_____. 1968. Language and Mind. New York : Harcourt.

Dale, P. S. 1976. Language Development : Structure and Function. (2nd ed.) New York : Winston.

Gardner, R. A. & B. T. Gardner. 1969. Teaching sign language to a chimpanzee.

Science 165, 664-672.

Lenneberg, E. H. 1967. Biological Foundations of Language. New York : Wiley.

McNeill, D. 1966. Developmental Phycholinguistics. The Genesis of Language : A Psycholinguistic Approach. Cambridge, Mass.: MIT Press.

_____. 1970. The Acquisition of Language : The Study of Developmental Phycholinguistics. New York : Harper & Row.

_____. 1971. Are there specifically linguistic universals? Semantics, ed. by Steinberg, D. D., & L. A. Jakobovits. Cambridge, England : Cambridge University Press.

Nelson, K. E. 1977. Facilitating children's syntax acquisition. Developmental Psychology 13, 101-107.

Sinclaire-de-Zwart, H. 1973. Language acquisition and cognitive development. Cognitive Development and the Acquisition of Language, ed. by T. E. Moore. New York : Academic Press.

Slobin, D. I. 1970. Universals of grammartical development in children. Advances in Psycholinguistics, ed. by G. B. Flores & W. J. M. Levelt. New York : Elsvier.

_____ 1973. Cognitive prerequisites for the development of grammar. Studies of Child Language Development, ed. by Ferguson, C. A. & D. I. Slobin. New York : Winston.

Snow, C. E. and C. A. Ferguson (eds.). In Press. Language Input and Acquisition. Cambridge, England : Cambridge University Press.

Park, T.-Z. 1970. The acquisition of German syntax. Unpublished paper.

Premack, A. J. and D. Premack. 1972. Teaching language to an ape. Scientific American 227, 92-99.

Rosch, E. H. 1973. On the internal structure of perceptual and semantic categories. Cognitive Development and the Acquisition of Language, ed. by T. E. Moore. New York : Academic Press.

趙明翰・鄭福善. 1975. 아동의 언어발달 단계에 관한 심리학적 연구 Ⅰ. 초기 언어. 應用言語學 7:1. 11-27.

ABSTRACT

Some Problems in Language Acquisition

Myeong-han Zoh

While the study of language development in children has rich historical tradition, especially, the last decade has seen a much more rapid development in subtlety of research methods, depth of theoretical issues, and abundance of new findings. This paper aimed to review five current questions about language development in order to suggest some

promising directions.

First, any effort to try to apply a certain grammar to child language has only taken researchers to endless distributional detail of doubtful generality, and never sufficiently complete. Therefore, 'the goal of creating a type of grammar that is suitable for both adult and child language remains. The two cannot be considered in isolation from each other, for eventually the child's language becomes that of the adult.'

Second, both of the findings that reveal the gradual continuity of language development and the tremendous effects of parental speech on children strongly discourage the innateness hypothesis.

Third, a lot of characteristics in child speech has proved to have some generality which supports the universality hypothesis, but not innateness. The D.I. Slobin's principle, 'new forms express old functions, and new functions are first expressed by old forms', is compatible with cognitive prerequisites for the syntactic development.

Fourth, recent studies on the structure and/or acquisition of word meaning have focused attention on the role played by prototypes or best exemplars in the internal structure of natural categories to which words refer. A new paradigm of reference that radically departs from the traditional view of all-or-none categorization is emerging.

Fifth, efforts to teach chimpanzees language are remarkably in progress. The chimpanzees have become capable to demonstrate stage I child language, so that the species-specific and species-uniform assumption for human language is open to doubt.

151-00
서울특별시 관악구 신림동
서울대학교 사회과학대학 심리학과
(접수 : 1977. 11. 29)